

2017년

제55회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

제5회 한국아동보호학회 • 제4회 무궁화복지월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본 아동학대

- 일 시 : 2017년 4월 14일(금) 13:00 - 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 주 최 : 한국아동보호학회 • 국회의원 진선미
- 주 관 : 무궁화복지월드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후 원 : 화광신문 • 한국로슈진단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광동제약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Korea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학술세미나 일정

제 1부 개회식	
13:00 - 13:30	등 록
13:30 - 14:00	<p>개 회 식 사회 : 안성경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p> <p>개회사 : 문영희 회장 (한국아동보호학회) 축 사 : 진선미 국회의원 격려사 : 시경술 이사장 (무궁화복지월드) 인 사 : 이배근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p>
14:00 - 14:10	휴 식
제 2부 발표 및 토론	
좌장 : 이 은 주 (동국대학교 교수)	
14:10 - 15:00	<p>제1주제 :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p> <p>발표 : 김 지 현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토론 : 임 선 아 (전북대학교 교수)</p>
15:00- 15:50	<p>제2주제 : 미술치료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p> <p>발표 : 조 영 숙 (바움 심리상담센터장) 토론 : 김 은 영 (한국사회복지미술치료사협회 이사) 홍 은 주 (울지대학교 교수)</p>
15:50 - 16:00	휴 식
제 3부 발표 및 토론	
좌장 : 강 동 욱 (한국아동보호학회 고문)	
16:00 - 16:40	<p>제3주제 : 아동학대로서 부모에 의한 자녀동반자살의 발생기제와 원인탐색</p> <p>발표 : 이 미 정 (한림대학교 교수) 토론 : 조 윤 오 (동국대학교 교수)</p>
16:40 - 17:00	종합토론
17:00	폐 회

목 차

주제발표Ⅰ :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지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교육국장)	1
토 론 :	임선아 (전북대학교 교수)	24
주제발표Ⅱ :	미술치료관점에서 본 아동학대 조영숙 (바움 심리상담센터장)	25
토 론 :	김은영 (한국사회복지미술치료사협회 이사)	31
	홍은주 (울지대학교 교수)	33
주제발표Ⅲ :	아동학대로서 부모에 의한 자녀동반자살의 발생기제와 원인탐색 이미정 (한림대학교 연구교수)	34
토 론 :	조윤오 (동국대학교 교수)	48

주제발표 I

청소년의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지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교육국장)

I.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발달에 비해 정서적, 심리적, 인지적 발달이 미숙하고 변화가 극심하여 매우 불안정한 발달단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외부적 자극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여 사소한 일에도 급격히 스트레스 자극을 받는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스트레스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거나 환경을 통제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학업, 친구, 가정 경제 등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힘든 사항들에 좌절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사표현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임미례, 2010).

실제로 통계청과 여성가족부(2016)가 발표한 ‘2016 청소년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4년도의 경우 청소년(9-24세) 자살 사망률은 10만 명당 7.4명으로 운수사고의 4.9명이나 악성신생물(암)의 2.9명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살시도는 일반적으로 자살생각에 후속되는데, 또 다른 통계청과 여성가족부(2013)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난 1년간 청소년의 11.2%가 한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건대 청소년 자살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불안정한 발달단계상의 청소년들을 자살로 내모는 주요한 원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교육관련 요인, 부정적인 생활사건, 가정·가족 환경, 그리고 정신의학적·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김호경, 2015). 본 연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부정적인 생활사건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폭력 피해경험이다. 대표적인 폭력 피해경험으로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또래들로부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들 수 있다. 가장 예민한 시기에 가장 친밀한 공간에서 가장 우호적이어야 할 대상으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들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어 공격성, 우울 및 불안과 심리정서적인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김아다미, 2001; 김재엽·최지현, 2005; 정익중, 2008; 최은영·안현의, 2011; 김재철·이경숙·성경주, 2012; 김지영·이경희, 2015; Baldry & Winkel, 2003), 결국에는 그들을 자살생각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그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청소년들은 학대경험 후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켜주는 특정 요인에 의해 자살위기로부터 보호되기도 한다(하진의, 2014). 청소년들의 부정적 생활사건에서 기인하는 자살생각에 대하여 보호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으로는 친구와 가족, 교사 등에 의한 지지, 즉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우울, 자살생각 등 부정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엄태완·강명진·최정순, 2008; 장선희·이미애,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대표적인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서의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그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나아가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의한 그들의 자살생각의 완화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즉,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함께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는 동시에 이들 요인들과 청소년 자살생각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청소년의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의 자살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단면적인 접근 방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는 한편 이에 덧붙여 청소년들에게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청소년 자살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소년의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폭력 피해경험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폭력 피해경험으로는 아동학대를 들 수 있다. 먼저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는 대개 주 양육자인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신고접수된 전체 아동학대 11,715건 중에서 부모에 의해 자행된 아동학대는 전체의 79.8%인 9,3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즉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곧 가정 내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노출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증상을 보이며, 타인을 잘 신뢰하지 못하여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파괴적·공격적 행동을 나타내며, 집중력 장애, 인지손상, 급우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또래집단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문영희, 2009).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그들의 자살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박재연, 2014). Perkins와 Jones(2004)의 연구에서는 신체적으로 학대 경험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비교했을 때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이 31.5%이고 학대 경험을 하지 않은 청소년은 10.0%로 나타나므로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약 3배 더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나미, 2012).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피해경험 외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폭력 피해경험은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이다. 최근에 교육부(2015)가 발표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

학년까지 41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9/14-10/23)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90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4천명(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차 대비 15천명(0.3%) 감소한 것이나 여전히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Olweus(1994, 김창균·임계령, 2010 재인용)에 따르면, ‘소극적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갖고 있으며,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학교라는 환경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거나 특히, 교내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한 이후에 분노와 적개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경험은 이와 같이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때로는 자살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 관련 연구들에도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백진숙, 2013; 하진의, 2014; 김재엽·장용언·서정열·박지민, 2014; 남석인·남보영·장은혜, 2014).

2. 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는 후유증으로 행동상의 부적응 초래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아동학대 피해경험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아동학대가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주어 불안·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공격적 행동과 비행, 싸움 등 신체적 증상의 외현화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한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한다(김재엽·조학래·양혜원, 2003; 장덕희, 2004; 전해숙, 2008). 내재화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외현화 문제의 어려움 역시 많이 겪게 되며, 사회적 능력 또한 낮아 궁극적으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정란, 2003).

또 다른 연구(Feiring et al, 2000)에 의하면 학대에 대해 자기비난을 많이 하고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은 더 낮고 우울감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더 높다고 한다. Street와 Arias(2001)의 연구에서도 수치심이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학대와 장애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전철은(2003)의 연구를 보면 수치심은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증상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이정숙, 2008).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우울이나 불안, 수치심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경험에서 기인하는 우울이나 불안, 수치심 등은 자살생각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김지영과 이경희(2015)의 연구에서는 우울 및 불안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고, 수치심은 여성의 경우에는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심혜선·김지현, 2013),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소성인·김현수, 2016).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및 부모 간의 폭력 목격 경험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정서적 학대와 방임, 중복피해는 자살생각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박경, 2005; 김은경·이정숙, 2008).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우울이 높아지며, 그 기간이 길수록 우울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청소년의 우울에 학교폭력이 유의미하게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재엽·정윤경, 2007; 윤명숙·조혜정, 2008; 박재연, 2010; Ozer & Weinstein,

2004).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충동적인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다. 우울증상이 지속되면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려는 시도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우재영·박아청·정현희, 2010). 청소년 우울 및 자살생각에 대해 경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전영주, 2001), 학교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의 우울정도가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학생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재연, 2010). 또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 정도가 심해질수록 우울과 자살위험이 높다고 보고된다(Flannery, Singer & Wester, 2001, 2004).

3. 청소년의 자살생각

최근 한국건강증진재단(2013, 연합뉴스, 2013.9.10.)은 OECD 31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10세에서 24세 청소년의 자살사망률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자살사망률 증가율이 칠레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자살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청소년 사망 원인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통계청·여성가족부, 2016)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 자살 관련 통계는 구체적인 수치로 적시할 수 있는 반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실태 조사는 용이하지 않다. 다만 지난 2015년 질병관리본부가 중·고생 68,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1.7%가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응답자의 2.4%는 자살을 시도해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

청소년들이 성장기를 지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자살생각 관련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 특히 심각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곧 폭력에의 노출 경험, 즉 피학대경험인데, Grilo, Sanislow, Fehon, Lipschitz, Martino, 그리고 McGlashan(1999)에 의하면 피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피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살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피학대경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의 피해 경험이다. Baldry와 Winkel(2003)의 연구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직·간접적인 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Pfeffer(1988)의 연구에서도 폭력과 성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행동의 고위험에 처해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청소년의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자살생각에 관한 선행연구들(Berenson et al., 2001; Gould, Greenberg, Velting & Shaffer, 2003; Perkins & Jones, 2004)은 어떤 형태로든 아동학대는 심리적으로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자살생각을 하는 경우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손병덕, 2005). Berenson과 그의 동료들(2001)은 청소년의 가정에서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였거나 직접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비교 연구하여 비행행동이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폭력목격이나 피해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비행, 약물사용, 자살생각 등의 위험이 2-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김석조, 2015). 이처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Blum, Harmon, Harris, Bergeisen & Resnick, 1992; Esposito & Clum, 2002; Gibb, Alloy, Abramson, Rose, Whitehouse, Donovan, Hogan, Cronholm & Tierney, 2001; Grossman, Milligan & Deyo, 1991). 국내 연구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으며(장용환·송지혜, 2011),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우울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백종림·정익중, 2013). 이처럼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석조, 2015).

학교폭력 피해경험 또한 가정폭력 피해경험 못지않게 청소년들에게 자살생각 영향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과 결합하여 자살이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공수자·이은희, 2006; 고재홍·윤경란, 2007; 이윤주, 2008). 특히 학교라는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있어 또래관계 형성의 장이 되고 있는 동시에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내외 연구들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살행동, 자살충동을 연구한 조사결과들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행동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경우가 다수이다(김정수·노성덕, 2003; 전영주·이숙현, 2000; Kandel, Ravens & Davies, 1991; Rigby & Slee, 1999). 김재엽과 이근영(2010)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Kim과 Leventhal(2008)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집단따돌림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았으며,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은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Bakken & Gunter, 2012). 또한 Turner와 Finkelhor, Shattuck, 그리고 Hamby(2012)의 연구에서도 또래 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또래 괴롭힘 피해 청소년들은 자살생각이 2.4배나 높다고 하였다(홍나미, 2012).

4.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사회적 지지

청소년들이 피학대경험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자살생각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피학대경험을 촉진시키는 요인에 의해 더욱 자살생각이 심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피학대경험 후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켜주는 요인에 의해 자살위기로부터 보호되기도 한다(하진의, 2014). 이에 따라 일부의 연구자들은 피학대경험과 자살생각 간을 중재하는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 물질적인 원조, 조언 및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Cohen & Wills, 1985, 이현우, 2011 재인용). 문동규와 김영희(2012)는 청소년의 자살 관련 심리 억제변수 중에서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효과를 가진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은 우울 및 자살생각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낮아지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김정수·노성덕, 2003; 이민숙, 2005; Rigby & Slee, 1999), Kandel과 그의 동료들(1991)은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청소년일수록 가족과 학교환경으로부터 받는 지지나 지원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장선희와 이미애(2010)의 연구에서는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 가족, 교사지지가 조절하며,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친구지지가 완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백진숙, 2013).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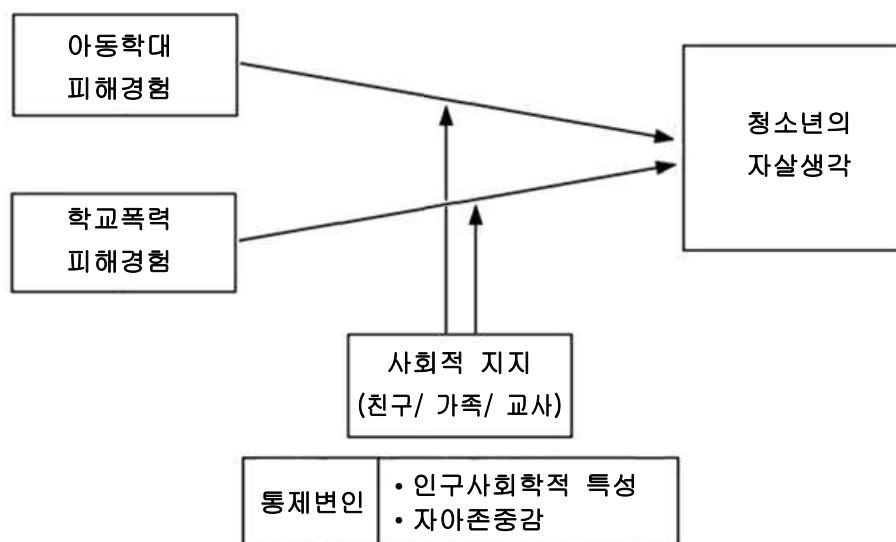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 소재한 25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다.

본 조사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한 2개 학교를 선정하여 재학중인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 조사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간이다. 조사자료의 수집은 사전 동의를 얻은 중·고등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포한 후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뒤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25개 학교에 총 353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자료적 가치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일부를 제외한 347부를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채택하여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또 그 영향관계 속에서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통제변인에는 자아존중감과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포함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 및 질문지의 구성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 측정은 Rosenberg(1979)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전병재(1974)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총 10 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일 차원의 척도로서 처음 개발된 이래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집단에게 사용되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각각 5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부정적으로 서술된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개발 당시의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9이다.

2)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

(1) 아동학대 피해경험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가정에서 청소년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청소년의 발달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제대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방임을 부모로부터 경험하였는지를 의미한다. 아동학대 피해경험 척도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측정하였다.

아동학대 피해경험 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0점에서 4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피해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김나연(201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9로, 박재연(2014)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6이다.

(2) 학교폭력 피해경험 척도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또래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하였는지를 측정하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척도 또한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된 것을 사용하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척도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0점에서 3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남석인 등(2014)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52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2이다.

3) 청소년의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eynolds(1987)의 SIQ(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구성한 것이다.

청소년의 자살생각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된 0점부터 6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권세원과 이동은, 장은혜, 한기주(201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로, 박재연(2014)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8이다.

4)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의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Du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 Cohen과 Hobbeman(1983)이 제작한 ISEL(the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그리고 Lemper와 동료들이 개발한 PQ(Parenting Questionnaire)를 기반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척도집(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연구지원팀.서울대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4)에 게재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요인으로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가 각 8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적으로 서술된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총점에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0으로 나왔으며, 각 하위요인별로는 친구지지 .925, 가족지지 .931, 교사지지 .896으로 나왔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조사를 위하여 회수된 조사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연구에 사용된 각 척도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하위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에 포함될 주요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일부 통제변인 및 독립변인, 조절변인과 종속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독립변인인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독립변인인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종속변인인 자살생각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서 상호작용항(독립변인 \times 조절변인)의 투입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의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척도, 아동학대 피해경험 척도, 학교폭력 피해경험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자살생각 척도 등의 척도들이 사용되었는데, 이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이 3.737점(S.D. = .7235)으로 나타나 중립에서 약간 높은 편 사이에서 약간 높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3점 만점에 평균은 0.220점(S.D. = .3423)으로, 이러한 결과는 김나연(2013)의 연구에서의 평균 0.18점(S.D. = .34)이나 박재연(2014)의 연구에서의 평균 0.16점에(S.D. = .405) 비해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다.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4점 만점에 평균이 0.156점(S.D. = .36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이 4.00점(S.D. = .5833)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요인별로는 친구지지(평균 4.169, S.D. = .663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지지(평균 4.124, S.D. = .7451)는 친구지지보다 미세하게 낮았고, 교사지지(평균 3.709, S.D. = .7371)는 두 집단의 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자살생각은 6점 만점에 평균이 0.330점(S.D. = .76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의 수준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재학중인 청소년 496명을 대상으로 한 박재연(2014)의 연구에서 측정된 자살생각의 평균 0.326점(S.D. = .666), 청소년 512명을 대상으로 권세원과 이동은, 장은혜, 한기주(2013)의 연구에서의 평균 0.34점(S.D. = .72)과 유사한 결과이다.

<표 1> 주요 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범위
자아존중감	3.737	.7235	1.90	5.00	1-5
학교폭력 피해	.220	.3423	.00	2.00	0-3
아동학대 피해	.156	.3681	.00	2.25	0-4
사회적 지지	4.000	.5833	2.38	5.00	1-5
친구 지지	4.169	.6639	1.25	5.00	1-5
가족 지지	4.124	.7451	2.13	5.00	1-5
교사 지지	3.709	.7371	1.00	5.00	1-5
자살생각	.330	.7637	.00	5.00	0-6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택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또 주요 변인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인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주요 변인들 과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아존중감($r = -.257, p < .01$)은 자살생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학교폭력 피해경험($r = .200, p < .01$)과 아동학대 피해경험($r = .438, p < .01$)은 각각 자살생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전체)($r = -.128, p < .05$)는 자살생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 중 친구지지($r = -.126, p < .05$)와 가족지지($r = -.200, p < .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사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자아존중감	1							
2. 학교폭력 피해경험	-.113*	1						
3. 아동학대 피해경험	-.173**	.200**	1					
4. 사회적 지지	.538**	-.114**	-.190**	1				
5. 친구 지지	.518**	-.176**	-.099	.836**	1			
6. 가족 지지	.445**	-.021	-.291**	.842**	.628**	1		
7. 교사 지지	.363**	-.092	-.068	.773**	.452**	.425**	1	
8. 자살생각	-.257**	.200**	.438**	-.128*	-.126*	-.200**	.010	1

* $p < .05$, ** $p < .01$

3.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채택한 통제변인과 독립변인 및 조절변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모델 1에서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결과 모델 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3.444, p < .001$), 자살생각에 대해 11.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성별($t=-1.996, p < .05$)과, 친구 수($t=-2.317, p < .05$), 건강상태($t=-2.000, p < .05$), 자아존중감($t=-3.662,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자살생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과 친구 수와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등의 변인들이 자살생각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는 자아존중감($\beta=-.229$), 친구 수($\beta=-.146$), 건강상태($\beta=-.129$), 성별($\beta=-.127$)의 순이었다.

모델 2는 모델 1에 독립변인인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투입한 것으로 모델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7.137, p < .001$). 모델 2는 자살생각에 대해 24.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델 1에 비해 설명력이 13.0%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통제변인 중에서는 성별($t=-2.228$, $p<.05$)과, 건강상태($t=-2.055$, $p<.05$), 부모의 부부친밀도($t=-.2112$, $p<.05$), 자아존중감($t=-3.32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 새로이 투입된 독립변인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도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피해경험($t=.7047$, $p<.001$)의 영향력($\beta=.354$)이 학교폭력 피해경험($t=.2892$, $p<.01$)의 영향력($\beta=.145$)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3은 모델 1에다 독립변인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조절변인 사회적 지지를 투입한 것이다. 그 결과 모델 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6.529$, $p<.001$), 자살생각에 대해서는 24.1%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모델 1에 비해 설명력이 13.1% 더 높아졌다. 모델 3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제변인 중에는 성별($t=-2.173$, $p<.05$)과 건강상태($t=-2.079$, $p<.05$), 부모의 부부친밀도($t=-.2017$, $p<.05$), 자아존중감($t=-3.103$, $p<.001$)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로 투입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중에서는 아동학대 피해경험($t=7.034$, $p<.001$)과 학교폭력 피해경험($t=2.675$, $p<.01$), 사회적 지지($t=-1.947$, $p<.05$)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는 아동학대 피해경험($\beta=.351$), 자아존중감($\beta=-.207$), 학교폭력 피해경험($\beta=.134$), 성별($\beta=-.130$), 부모의 부부친밀도($\beta=-.128$), 건강상태($\beta=-.127$), 사회적 지지($\beta=-.097$)의 순이었다.

모델 4는 사회적 지지 대신에(모델 3)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분석 결과이다. 그 결과 모델 4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5.199$, $p<.001$), 자살생각에 대해서는 25.2%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모델 1에 비해 설명력이 14.2% 더 높아졌다. 모델 4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제변인 중에서는 성별($t=-2.376$, $p<.05$)과 건강상태($t=-2.028$, $p<.05$), 부모의 부부친밀도($t=-2.229$, $p<.05$), 자아존중감($t=-2.964$, $p<.01$)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로 투입한 독립변인 아동학대 피해경험($t=6.501$, $p<.001$)과 학교폭력 피해경험($t=2.946$, $p<.01$), 조절변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의 가족지지($t=-2.744$, $p<.01$)가 유의미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는 아동학대 피해경험($\beta=.327$), 자아존중감($\beta=-.199$), 가족지지($\beta=-.180$), 학교폭력 피해경험($\beta=.149$), 성별($\beta=-.143$), 부모의 부부친밀도($\beta=-.142$), 건강상태($\beta=-.124$)의 순이었다.

<표 3>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347)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β	t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상수)		4.183***		2.493*		2.137*		2.231**
	성별 ¹⁾	-.127	-1.996*	-.132	-2.228*	-.130	-2.173*	-.143	-2.376*
	학년	-.087	-1.395	-.083	-1.440	-.078	-1.299	-.075	-1.247
	성적	-.062	-.922	-.080	-1.296	-.082	-1.314	-.086	-1.376
	성적만족	.017	.271	.058	.968	.057	.946	.040	.667
	친구 수	-.146	-2.317*	.089	1.509	.088	1.476	.094	1.546
	건강상태	-.129	-2.000*	-.123	-2.055*	-.127	-2.079*	-.124	-2.028*
	부모사이	.066	1.006	-.131	-2.112*	-.128	-2.017*	-.142	-2.229*
	경제수준	-.057	-.885	.027	.445	.025	.400	.033	.527
	자존감	-.229	-3.622***	-.196	-3.327***	-.207	-3.103**	-.199	-2.964**
독립 변인	아동학대			.354	7.064***	.351	7.034***	.327	6.501***
	학교폭력			.145	2.892**	.134	2.675**	.149	2.946**
조절 변인	사회적지지					-.097	-1.947*		
	친구지지							-.032	-.474
	가족지지							-.180	-2.744**
	교사지지							.106	1.897
F value		3.444	***	7.137	***	6.529	***	5.908	***
Durbin-Watson		2.138		2.253		2.254		2.278	
VIF		1.094-1.250		1.049-1.264		1.054-1.816		1.064-2.081	
R ²		.110		.240		.241		.252	
모델1 대비 R ² 변화량		-		.130		.131		.142	

* p<.05, ** p<.01, *** p<.001

1) 성별: 여 = 0, 남 = 1

4. 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앞서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모델 1에서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결과 모델 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3.444$, $p<.001$), 자살생각에 대해 11.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t=-1.996$, $p<.05$)과, 친구 수($t=-2.317$, $p<.05$), 건강상태($t=-2.000$, $p<.05$), 자아존중감($t=-3.622$,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자살생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과 친구 수와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등의 변인들이 자살생각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는 자아존중감($\beta=-.229$), 친구 수(β

=-.146), 건강상태(β =-.129), 성별(β =-.127)의 순이었다.

모델 2는 모델 1에 독립변인인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투입한 것으로 모델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7.166$, $p<.001$). 모델 2는 자살생각에 대해 24.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델 1에 비해 설명력이 13.1%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통제변인 중에서는 성별($t=-2.166$, $p<.05$)과, 건강상태($t=-2.093$, $p<.05$), 부모의 부부친밀도($t=-.2113$, $p<.05$), 자아존중감($t=-3.940$,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 비해 친구 수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부모의 부부친밀도가 영향요인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모델 2에 새로이 투입된 독립변인 아동학대 피해경험($t=.6621$, $p<.001$)과 학교폭력 피해경험($t=.281$, $p<.01$)도 자살생각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자살생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과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등의 변인들은 자살생각에 부(-)적으로,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는 아동학대 피해경험($\beta=.327$)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beta=-.194$), 부모의 부부친밀도($\beta=-.131$), 성별($\beta=-.128$), 건강상태($\beta=-.126$), 건강상태($\beta=-.126$)의 순이었다.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 조절변인 사회적 지지와 조절효과 분석에 필요한 독립변인인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조절변인 사회적 지지를 곱하여 산출한 ‘아동학대 피해경험 ×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델 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5.620$, $p<.001$), 자살생각에 대해서는 24.4%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과 독립변인은 동일하였다. 다만 영향력의 크기에는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성별(.128 → .121)과 부모의 부부친밀도(.131 → .127), 학교폭력 피해경험(.127 → .106)의 영향력은 모델 2에 비해 약간 낮아졌으며, 아동학대 피해경험(.327 → .497)의 영향력은 다소 큰 폭으로, 건강상태(.126 → .131)와 자아존중감(.194 → .225)의 영향력은 약간 높아지는 변화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투입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폭력 피해경험 × 사회적 지지’ 및 ‘아동학대 피해경험 ×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 중에서 ‘아동학대 피해경험 ×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의 크기는 $\beta=-.304$ 이다.

모델 4는 사회적 지지 대신에(모델 3)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및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관련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분석 결과이다. 그 결과 모델 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4.360$, $p<.001$), 자살생각에 대해서는 26.8%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모델 3과 동일하였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아동학대 피해경험(.497 → .408)은 다소 큰 폭으로, 건강상태(-.131 → -.128)은 미세하게 그 영향력이 축소되었으며, 성별(-.121 → -.134), 부모의 부부친밀도(-.127 → -.145), 자아존중감(-.225 → -.227) 등의 영향력은 미세하게 커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새로이 투입된 변인들 중에서는 가족지지($t=-.1138$ $p<.05$)와 ‘아동학대 피해경험 ×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t=-.2480$, $p<.05$)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가족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의 크기는 $\beta=-.235$ 이다.

<표 4> 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경험과 자살생각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N=347)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β	t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상수)		4.183***		2.468*		2.166*		2.351*
	성별 ¹⁾	-.127	-1.996*	-.128	-2.166*	-.121	-2.013*	-.134	-2.167*
	학년	-.087	-1.395	-.085	-1.466	-.081	-1.346	-.074	-1.224
	성적	-.062	-.922	-.080	-1.285	-.083	-1.323	-.083	-1.326
	성적만족	.017	.271	.057	.960	.053	.871	.030	.485
	친구 수	-.146	-2.317*	.088	1.494	.085	1.414	.103	1.647
	건강상태	-.129	-2.000*	-.126	-2.093*	-.131	-2.141*	-.128	-2.084*
	부모사이	-.066	-1.006	-.131	-2.113*	-.127	1.993*	-.145	-2.265*
	경제수준	-.057	-.885	.021	.341	.016	.264	.025	.408
	자존감	-.229	-3.622***	-.194	-3.940***	-.225	-3.982***	-.227	-3.998***
독립 변인	아동학대			.327	6.621***	.497	8.635***	.408	5.817***
	학교폭력			.127	2.581**	.106	2.105*	.106	2.003*
조절 변인	사회적지지					.041	.734		
	친구지지							.008	.124
	가족지지							-.075	-1.138*
	교사지지							.144	2.608
상호 작용항 [아동 학대]	x사회적지지					-.304	-5.300***		
	x친구지지							-.156	-1.427
	x가족지지							-.235	-2.480*
	x교사지지							.112	.980
상호 작용항 [학교 폭력]	x사회적지지					.023	.444		
	x친구지지							-.068	-.784
	x가족지지							.090	1.358
	x교사지지							.010	.155
F value		3.444 ***		7.166 ***		5.620 ***		4.360 ***	
Durbin-Watson		2.138		2.251		2.267		2.342	
VIF		1.094-1.250		1.071-1.260		1.169-2.532		1.203-3.186	
R ²		.110		.242		.244		.268	
모델1 대비 R ² 변화량		-		.131		.134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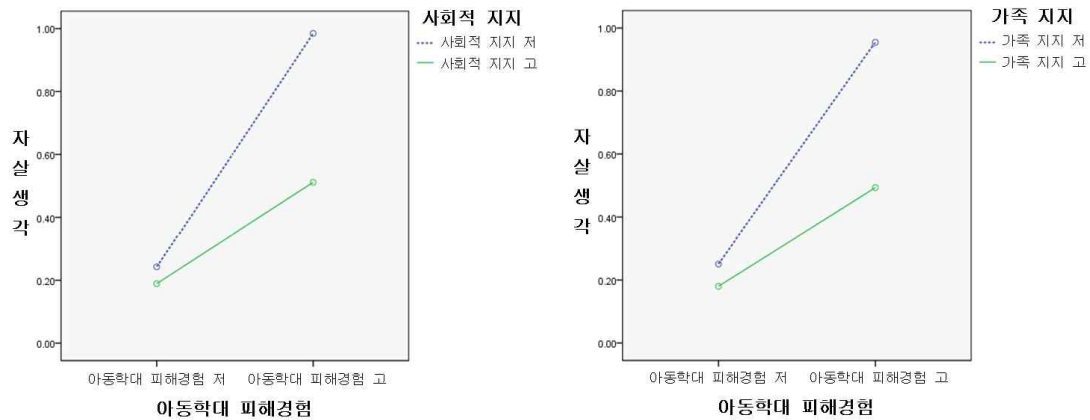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 성별: 여 = 0, 남 = 1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및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사회적 지지 및 가족지지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집단을 이분화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의 좌편의 그림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지지 점수의 고저에 따라 구분된 집단 중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의 기울기가 높은 집단의 기울기에 비해 많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아동학대 피해경험으로 인한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2]의 우편 그림을 살펴보면, 가족지지 점수의 고저에 따라 구분된 집단 중 가족지지가 낮은 집단의 기울기가 높은 집단의 기울기에 비해 많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가

족지지가 낮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아동학대 피해경험으로 인한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사회적지지 및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V. 논의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통제변인, 즉 성별과 친구 수, 건강상태, 부모의 부부친밀도, 자아존중감 등의 변인들이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독립변인인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도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조절변인 사회적 지지 또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 중에서는 가족지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자살생각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가족지지 또한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자살생각 간에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한 논의를 진행한다면, 첫째, 청소년의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Perkins와 Jones(2004), 손병덕(2005), 김진주(2012), 박재연(2009, 2014)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청소년 자살문제가 해결이 난망한 사회적 문제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이 발행한 2015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과 2010년도를 제외하면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된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36.0%가 증가하였고, 2015년에도 전년 대비 8.0%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곧 아동학대 피해경험에서 기인하는 자살생각으로 내몰리게 될지도 모를 청소년들의 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그 자체의 심각성은 당연하거니와 그 이상의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학대의 문제를 청소년 자살문제 예방의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박병금과 노필순(2007), 김재엽과 이근영(2010) 등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가 청소년 자살문제의 예방을 위한 개입에 유효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문제의 해결은 곧 청소년 자살문제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한 것은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2016)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0.8%로 전년 동차 대비 1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즉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증가와 학교폭력 피해율의 감소는 여전히 해결이 난망한 현재의 청소년 자살문제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감소는 청소년 자살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아동학대의 증가는 청소년 자살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한 연구모델에서 독립변인으로 채택한 본 연구에서의 시도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분석 결과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자살생각 간에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지지가 부가된다면 그들의 자살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때, 청소년의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아동학대를 경험한, 그래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해결책이 되고 만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아동학대 피해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피해경험을 가진 청소년들 위한 지지적 사회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경험 청소년들의 자살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결론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을 투입한 분석에서 나타난 결론은 보다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가족지지만이 아동학대 피해경험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와 가족지지가 원천적으로 부적인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논의의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청소년의 자살생각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가족지지의 강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청소년 자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 또한 간단하지는 않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가정의 해체라는 사실은 가족지지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기능의 강화를 통한 가족지지 수준의 제고를 위한

우리 사회의 간단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사지지 및 친구지지의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여부는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교사지지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제한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교사지지는 학교폭력 피해경험만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모델에서만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 피해경험만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모델과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모델에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 간에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성취 혹은 입시위주라는 우리 시대의 학교 현실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소년들을 자살생각으로 빠져들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지근거리에 있는 교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과 기능의 전수·전달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보듬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친구지지 또한 교사지지 이상으로 문제적 상황임이 드러났다. 즉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전혀 의미 없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 또한 우리 시대의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마저 무한경쟁 사회의 일원이 되어 버림으로써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 그도 아니면 무의미고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관계로만 이끌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로 유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교육현장에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학교 바깥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이 구비될 필요 또한 있다.

이와 같은 교사지지 및 친구지지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없다는 결과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교사와 친구라는 주요한 사회적 지원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들에게 전혀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입증하는 많은 선행연구들(박경, 2005; 김재엽·정윤경·이진석, 2009; 박재연, 2010; 조보행, 2013)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서는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상이한 결론이 가능할 정도로 관련 현상이 유동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청소년의 자살문제와 관계되는 한에서는 교사지지 및 친구지지의 질적 변화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그런 지지적 관계가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또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지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을 경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및 앞서의 논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 정책적인 면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살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 제고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특히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확인된 만큼 일차적으로는 가족기능의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정 및 가족의 해체가 시대적 흐름인 현 시대 상황 속에서 이는 청소년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할지라도 친구지지 및 교사지지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요한 요인들이기에 이 역시 고려할 필요는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수준이 문제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평면적인 사회적 지지의 수준 제고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살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지의 수준이 여타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소년 자살의 문제 해결에는 유효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지지의 수준보다는 지지의 내용, 혹은 질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 자살문제를 포함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정부에서의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복원하거나, 아니면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적 환경에서 관련 기구를 통하여 청소년 문제 전반을 통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기존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기존의 사회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중에서 청소년 관련 부분에 대하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시설들이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이나 친구지지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때,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설 운영평가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써도 소기의 목적 달성은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재학중인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2015)의 사업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50개 학교에서만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수행중이며, 그나마 중·고등학교의 경우 64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현장에서 개별·집단·가족상담, 사례관리, 교육활동지원,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프로그램, 지역자원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노혜련·김상곤, 2005). 따라서 동 제도의 확장을 고려해야 하며,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수행 또한 청소년 자살문제의 해결을 염두에 두고 행해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상적인 역할 수행 외에도 단순한 친밀감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사지지의 방향을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로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친구지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당장 도입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존의 교사들 중에서 일부를 선발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선 교사들로 하여금 특정 시간 동안 사회복지 교육과정을, 특히 청소년복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것도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다양한 기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을 것이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에다 청소년 자살문제 해결의 관점을 포함하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개설은 청소년 관련 기관 위주로 하여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의 목적성을 분명

히 할 필요는 있다.

청소년 자살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는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내용상에서도 단순히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구태의연한 방식보다는 교사 및 친구들의 지지로 자살문제에 내몰린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방식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자살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교사로서의 역할, 친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자살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그저 선언적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후속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아동학대 피해 증가와 학교폭력 감소라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단지 1회적 연구로써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대상과 환경적 여건 등을 더욱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살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그 방향에 있어서는 자살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의 관점이 아니라 그와 같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일 필요가 있다. 즉 지지 세력들로 하여금 제대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에게 수영을 가르쳐서 빠져나오게 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그를 건져내는 것이 더 제대로 된 해결책임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고재홍·윤경란.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아탄력성의 완충효과”. 『청소년학연구』. 18(1): 185-212.
- 공수자·이은희. 2006. “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1(1): 21-40.
- 교육부. 2015.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교육부. 2016.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권세원·이동은·장은혜·한기주. 2013. “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중학생 시기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종단적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1): 205-231.
- 김나연. 2013.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하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조. 2015.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위축으로 매개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다미. 2001. “아동의 학대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이정숙. 2008. “아동기 학대경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 수치심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23-134.

- 김재엽·이근영. 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121-149.
- 김재엽·장용언·서정열·박지민. 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83-110.
- 김재엽·정윤경. 2007.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요인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 5-28.
- 김재엽·정윤경·이진석. 2009. “가정내 자녀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119-144.
- 김재엽·조חק래·양혜원. 2003.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와 개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27-54.
- 김재엽·최지현. 2005. “여대생의 아동학대경험이 정신건강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2): 27-47.
- 김재철·이경숙·성경주. 2012. “부모학대가 청소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20: 119-139.
- 김정란. 2003. “가정폭력노출 실태분석을 통한 피해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력 향상방안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1-23.
- 김정수·노성덕. 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 자아탄력성, 학교만족, 가족화목, 사회적 지지 및 우울과 관련하여”. 『대학생활연구』. 21: 153-172.
- 김지영·이경희. 2015.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에 의해 조절된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45(5): 752-760.
- 김진주.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 및 자살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균·임계령. 2010.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38: 173-198.
- 김호경. 2015. 『자살 예방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남석인·남보영·장은혜. 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57-80.
- 노혜련·김상근. 2005.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8: 159-197.
- 문동규·김영희. 2012.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된 억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청소년학연구』. 19(1): 59-83.
- 문영희. 2009. “아동학대의 의의와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7: 549-569.
- 박경. 2005.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한국학교심리학회지』. 2(2): 131 -147.
- 박병금·노필순. 2007. “우울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변인 -우울청소년과 비우울청소년의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168-193.
- 박재연. 2009.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구조적 관계 검증”. 『청소년학연구』. 16(10): 249-272.
- 박재연. 2010. “청소년의 자살위기와 레질리언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연. 2014.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1): 201-224.

- 백종림·정익중. 2013. “부부폭력목격 경험과 학대경험이 아동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과학연구』. 29(1): 121- 142.
- 백진숙. 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 11: 63-94.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연구지원팀·서울대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4. 『사회복지척도집』. 서울: 나눔의 집.
- 소성인·김현수. 2016.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중재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1(2): 35-52.
- 손병덕. 2005. “일반청소년, 학습장애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행동에 미치는 다변적 요인에측”. 『청소년학연구』. 12(1): 207-228.
- 심혜선·김지현. 2013. “여성의 수치심, 자기용서와 자살생각 -자기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발전논총』. 34(1): 159-179.
- 엄태완·강명진·최정순. 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자살생각과 사회적 지지: 성차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22: 5-30.
- 우채영·박아청·정현희. 2010.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9-38.
- 윤명숙·조혜정. 2008. “청소년의 폭력경험유형이 우울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295-329.
- 이민숙. 2005. “노인의 우울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2(3): 191-211.
- 이윤주. 2008. 『청소년자살상담』. 서울: 학지사.
- 이현우. 2011.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조절효과 검증”.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미래. 2010. “청소년의 스트레스 절망감,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덕희. 2004. “가정폭력 경험특성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1(3): 65-91.
- 장선희·이미애. 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8): 27-55.
- 장용환·송지혜. 2011.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책과학연구』. 20(2): 80-104.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7-130.
- 전영주. 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 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39(1): 1-17.
- 전영주·이숙현. 2000.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7(1): 221-246.
- 전철은. 2003.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763-775.
- 전해숙. 2008. “아동학대 및 아동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아동우울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사회사업』. 30: 55-77.

- 정익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 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조보행. 2013. “청소년자살의 위험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분석”.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영·안현의. 2011.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여성심리학회지』. 16(3): 285-302.
- 통계청·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통계』.
- 통계청·여성가족부. 2016. 『2016 청소년통계』.
- 하진의. 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부모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3): 55-75.
- 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한국건강증진재단 보도자료(2013. 9. 10). 서울: 한국건강증진재단.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2015.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업현황 자료.
- 홍나미. 2012.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의 영향에서 대인관계 내재화와 절망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4(1): 151-175.
- Bakken, N. W. & Gunter, W. D. 2012. Self-Cutting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Gender Differences in the Causes and Correlates of Self-Injury, *Deviant Behavior*, 33,5, 39-356.
- Baldry, A. D. & Winkel, F. W. 2003. Direct and vicarious victimization at school and at home as risk factors suicidal cognition among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6, 703-716.
- Berenson, A. B., Wiemann, C. M. & McCombs, S. 2001. Exposure to violence and associated health-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 girls. *Archives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5,11, 1238-1242.
- Blum, R. W., Harmon, B., Harris, L., Bergeisen, L., & Resnick, M. D. 1992. American Indian-Alaska Native youth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7, 1637-1644.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Esposito, C. L. & Clum, G. A. 2002. Social support and problem- solving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ality: Applications to a delinquent popul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2, 137-146.
- Feiring, C., Rosenthal, S. & Taska, L, 2000, Stigmat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friendship and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t victims of sexual abuse. *Child Maltreat*, 5, 311- 322.
- Flannery, D. J., Singer, M. I., & Wester, K. 2001. Violence exposure, psychological

- trauma and suicide risk in a community sample of dangerously violent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435-442.
- Flannery, D. J., Wester, K., & Singer, M. I. 2004. Impact of exposure to violence in school 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behavior.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559-573.
- Gibb, B. E., Alloy, L. B., Abramson, L. Y., Rose, D. T., Whitehouse, W. G., Donovan, P., Hogan, M. E., Cronholm, J. & Tierney, S. 2001. History of Childhood Maltreatment, Negative Cognitive Styles, and Episodes of Depression in Adulthood.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4, 425-446.
- Grilo, C. M., Sanislow, C. A., Fehon, D. C., Lipschitz, D. S., Martino, S. & McGlashan, T. H. 1999. Correlates of suicide risk in adolescent inpatients who report a history of child abuse. *Comprehensive Psychiatry*, 40, 422-428.
- Grossman, D. C., Milligan, C. & Deyo, R. A. 1991.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among Navajo adolescents. *Am J Public Health*, 81, 870-874.
- Kandel, D. B., Ravens, V. H.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289-308.
- Kim, Y. S. & Leventhal, B. 2008. Bullying and suicide, *Int J Adolesc Med Health*, 20,2, 133-154.
- Olweus, D. 1994. Bull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7, 1171-1190.
- Ozer, E. J. & Weinstein, R. S. 2004. Urban adolescents'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The role of support, school safety, and social constraints in a school-based sample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Child Clinical and Adolescent Psychology*, 33,3, 463-476.
- Perkins, D. & Jones, K.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8, 547-563.
- Rigby, K. & Slee, P. 1999.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 School Children, Involvement in Bully-Victim Problem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2, 119-130.
- Street, A. E. & Arias, I. 2001. Psychological abus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Examining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Violence and Victims*, 16, 65-78.
- Turner, R. J. 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357- 367.

연합뉴스. 2013.9.10. “청소년 자살 10년간 57.2% ↑ …증가율 OECD 2위”

토론 I

‘청소년의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논문에 대한 토론문

임선아(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대표적인 부정적 생활사건이라 할 수 있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부정적 관계가 ‘사회적 지지’라는 변인에 의해 완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 자살문제의 해결에 기여코자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몇 가지 점에서 논문이 수정 및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본 논문의 완성에 조금이나마 기여코자 한다.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점을 순서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왜 자살생각에 관심이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즉, 자살은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 여러 가지 세부 개념으로 나뉘지며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연구자는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왜 자살계획이나 자살시도와 같은 더 심각한 자살위험 내용이 아닌 자살생각을 연구의 주요 개념으로 사용하였는지 기술하고, 이러한 자살생각이 자살위험과 실제 자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왜 자살생각에 대해 연구되는 것이 필요한지 밝혀줌으로써 본 연구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문제이다. 연구자는 아동학대 피해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등의 변인을 본 연구의 주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념들이 정확한 개념의 정의 없이 너무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나 학교 피해경험도 세부내용으로 나뉘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의 경우, 연구자는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을 당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 같다. (서론이나 측정도구 부분에서 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만약 학대의 세부 유형을 나누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셋째, 사회적지지 척도의 문제이다. 연구자는 사회적지지를 구성하는 세 개의 하위영역을 나누어 사용하고 또한 이들의 합으로 ‘사회적지지’ 변인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분석모형에 사회적지지와 세 개의 하위영역을 함께 넣어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지지를 조절변수로, 또 세 개의 하위영역을 조절변수로 사용하는 각각의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다른 해석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모형 안에 함께 넣지 않음으로써 통계적 오류를 피했을지 모르나 뒤에 해석과 논의에서 사회적지지가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지지 중 가족지지만 조절효과가 있다고 함으로써 혼란스런 결과를 내고 있다.

넷째, 분석의 결과 또한 위의 셋째 내용과 맞물려, 조절변수로 사회적지지의 전체 값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회적지지가 투입되면 R^2 의 변화량은 단지 .001의 변화만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인지에 대한 F변화량에 대한 유의성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와 다르게 사회적 지지를 각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본 모형에서는 변화량의 변화가 사회적 지지만을 넣었을 때보다 의미있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자는 사회적지지의 조절변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주제발표 II

미술치료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 -아동기 신체적 학대로 인한 외상 경험 중심으로-

조영숙(바움 심리상담센터장)

I. 들어가며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면 심리적 외상을 입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장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아동학대, 자연재해나 전쟁, 사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심각한 상처나 폭력에 의한 죽음 등과 같은 충격적 사건에 노출된 후 나타나는 불안장애이다. 특히 아동기 심리적 외상은 훗날 성인기 정신장애나 심리적 증상들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장기적으로 성격 및 발달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유경, 200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해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을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어린 시절 아픈 기억이나 고통을 무의식에 억압함으로써 증상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억압이론은 어린 시절 외상의 경험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마음의 기억을 무의식의 저장고로 보낸다는 것인데 이러한 무의식은 백일몽이나 공상, 그림을 통해 재현될 수 있다. 아동기 외상적 기억을 다양한 미술매체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경험의 재구조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 때 미술을 통해 표현되는 상징은 중요한 치료적 도구이자 지표가 될 수 있다(전순영, 2009). 따라서 아동기 신체적 학대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미술치료적 개입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치유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아동기 외상과 미술치료

1. 아동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심리적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임상적 양상 및 특징에 따라 '일차적(primary)' 증상과 '이차적(secondary)' 증상으로 구분된다(신응섭 등, 1996). 일차적 증상들은 DSM-V에 따라 진단 기준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들로 외상의 재경험(intrusive recollection), 회피반응(avoidant) 및 반응의 마비(numbing), 과각성(hyper-arousal) 등의 증상을 가진다. 이차적 증상은 우울증, 불안, 충동적 행동, 물질중독, 신체화, 긴장 등 PTSD와 공존하나 장애 판단 기준에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증상과 증상 군을 의미한다. 외상적 사건을 겪은 사람은 PTSD나 또는 그 진단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우울이나 불안, 해리 등의 많은 정신장애를 겪을 수 있다. 또한 아동기 외상경험은 이후 성인기 외상적인 사건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고 또한 이후 성인기에 정신장애나 심리적 증상들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이유경, 2006).

아동기의 외상경험은 위와 같은 심리적 증상 외에도 낮은 자아존중감과 원만하지 못한 대인 관계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김숙진, 2008). 특히, 어린 시절 가정 내의 가까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체적 학대,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나 방임, 성폭행과 성적 학대 등은 다른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여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석만, 2003).

아동은 성인에 비해서 외상 사건을 겪게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노미연, 2007, 재인용). 또한 아동이 나타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성인과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예컨대, 아동은 외상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기보다 외상 사건과 관련된 주제를 놀이 형식으로 재현할 수 있다. 또한 외상 사건과 직접 관련된 꿈을 꾸기보다 괴물이 나타나거나 다른 사람을 구출해내는 내용의 꿈을 꾸는 경향이 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외상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리적인 충격을 분리불안, 신체화 증상, 비행 행동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권석만, 2003).

Terr(1987)는 아동이 외상에서 4가지 특징적인 유형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외상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영상화하고, 행동과 육체적인 반응, 특정한 외상에 대한 두려움을 되풀이하고, 삶, 미래에 대한 변화된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특성들은 아동들이 그들의 경험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며 성숙과 성인기로의 발달과정을 어렵게 만든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성인기의 심리적 외상보다 아동기에 받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더욱 더 장기적으로 성격 및 발달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아동기 외상의 경험과 아동의 미술표현

외상을 경험한 아동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불안, 무기력, 두려움, 외로움, 우울, 취약성, 그리고 절망감 등의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

아동들은 자신이 경험한 외상을 슬픔, 비탄, 상실에 대한 감정과 연관지어서 미술이나 놀이 활동으로 종종 표현한다. 아동학대의 외상에 대한 많은 저서를 남긴 Alice Miller(1986)는 자기 자신의 아동기 때 학대와 예술적 창조성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아동기 때 받았던 외상으로 인한 감정들이 미술 표현에 보여 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Malchiodi, 2001).

외상의 영향을 반영하는 아동 미술표현과 미술작품의 특징은 발달적, 환경적, 개인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상 아동 중에는 미술표현에 있어서, 특히 그림을 그릴 때 발달 단계에 맞는 세부묘사나 색의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소아 환자는 주로 검은색과 빨간색을 사용하는데, 이는 신체적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검은색은 중병을 가진 아동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검은 부분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빨간색은 아픈 아동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빨간색은 피를 연상케 하고 통증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Malchiodi, 2003).

폭력이나 학대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을 가진 아동들은 그림을 순식간에 그리며, 상세하게 그리려고 몰두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모습을 통합되게 그리는 것도 서툴다(Malchiodi, 2001).

그리고 미술표현을 통해 표현되는 신체적, 심리적 외상의 반응은 개인적이며, 아동이 외상, 나이, 발달수준, 가족과 친구 등 다른 이들의 지지 정도 그리고 경험한 외상의 유형과 정도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외상의 표현 또한 개인적 표현 양식에 의해 그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외상 초기에는 단순한 미술표현이 나타나는데, 어떤 작품은 전형적인 만화나 낙서 비슷하다고 한다. 이는 외상을 입은 아동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여 그들을 둘러싼 삶으로부터 해리되어 있을 수 있고, 질병, 외상 또는 의료적 중재로 인해 우울증으로 쇠약해져서 미술 표현을 힘들어하거나 잘 참지 못하여 그들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노미연, 2007).

그 외 외상을 경험한 아동들 그림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나친 음영의 표현, 반복적인 그림, 슬픔에 대한 이야기와 그림, 고립, 절망감, 자기파괴 등의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Malchiodi, 2001).

3. 아동기 외상의 경험과 미술치료 관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 목적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외상 기억을 몰아내고 희생자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과, 외상이 발생하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에 있다. 이는 외상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통합하여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한다는 것이다(김지영, 2013).

Johnson(1987)은 아동기 외상의 경험에 대한 치료적 개입으로 예술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예술을 발전시킨 이유는 자신과 공동체의 외상이나 두려움, 불안, 그리고 심리적인 두려움의 감정을 담고 억누르거나 혹은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고, 미술표현을 통하여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자신과 고통스러운 사건 간의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Miller(1986)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이나,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 자신들이 고통에 침묵하려는 아동에게, 미술표현은 무엇이 비밀이고 무엇이 현실화하는데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지영, 2013).

아동에게 있어 미술은 내면을 표현하는 세계 공통언어라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심리를 비방어적이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유용한 도구이며, 그들이 겪는 혼란스러움과 고통을 안전하게 표출하게 함으로써 극복하게 도와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감정을 언어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는 미술표현이 상반된 감정이나 혼란스러움, 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정확하게 해 준다고 여겨진다.

Amheim(1992)은 미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미술은 고통의 시기에 협력자로서, 인간 존재의 조건을 이해하게 하고, 그러한 조건 속의 각자가 두려워하는 부분들과 대면

하게 하는 수단이 되며, 객관적인 현실을 다룰 수 없어 혼란스러워할 때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질서를 창조하게 한다. 이렇듯 도움을 가져다주는 미술은 곤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치료사들이 있다.”

대부분의 아동미술치료사들은 정서적 외상이나 슬픔을 겪는 아동들에게 미술로 표현하게 하는 것은 강력한 양식이며, 강하고 복잡한 감정을 수용하고 탐색하게 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전문가들은 미술 표현이 아동들의 정서적 삶을 말해 줄 수 있다는데 많은 흥미를 가졌다. 왜냐하면, 미술이 감정에 대한 의사소통의 방식이며, 아동에 대

한 대부분의 치료적 개입이 정서적 위기나 외상 또는 정서장애의 해결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Malchiodi, 2001).

미술은 외상 아동에게 문제가 되는 감정을 표출하도록 도우며, 치료자에게는 아동의 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아동을 외상과 분리하도록 돕는 시각적 단서를 제공한다(Malchiodi, 2003).

Rubin(2002; 김진숙 역, 2002)은 재료를 만지고 구체적인 대상을 창조할 수 있는 미술작업은 끔찍한 외상을 겪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며, 두려움이나 과거의 트라우마를 실체가 있는 형태로 표현하고 나면 그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잠재우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감은 현실세계로도 이어진다고 하였다(김지영, 2013, 재인용).

미술치료는 학대 피해아동이나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아동이 갖는 심리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비구조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술매체를 통하여 대화를 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상처를 적게 주면서 아동의 내적인 문제를 그림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내적인 표출과 통합은 미술이라는 자기표현을 하도록 돕는 편안하고 엄마의 품과 같은 충분히 수용적이고 안전한 공간, 치료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김숙진, 2008, 재인용).

따라서 미술치료는 학대받은 아동들의 여러 가지 후유증들을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는 투사적 도구로서의 카타르시스에 효과적이며, 아동의 아픈 경험을 시각화 하는데 도움을 주며, 내면에 억압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Ⅲ. 외상 후 경험에 대한 미술치료 사례

1. A 아동

만 5세 남자아동으로 가정 내에서 주로 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아왔으며, 부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모의 일용직에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다. 15개월 때 여동생의 출생과 경기로 인해 잦은 방임이 이어졌으며, 16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지면서 언어의 지체현상과 더불어 공격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는 등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교사에게도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다.

2. B 아동

만 9세 남자아동으로 가정 내에서 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아왔으며, 학교생활에서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등 학교부적응으로 인식되었으며, ADHD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Ⅳ. 나오며

아동기 심리적 외상 경험이 장기적으로 성격 및 발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훗날 성인의 정신장애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심리적 외상에 대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미술치료에서 미술활동을 통한 새로운 창조성과 승화는 트라우마의 기억을 예술적인 표현으로 재창조하여 삶의 기쁨을 얻으며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미술작업을 통해 내담자 자신의 감정에 대한 억압이나 회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감정해소와 승화로 이어짐으로써 감정을 정확하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재조명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5년 아동학대 행위자 통계조사에 의하면, 82%가 부모에 의한 학대이며, 학대 받은 아동의 10명 중 8명의 아동이 아동 본인의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의 발생 빈도가 월등히 높으며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내 학대받은 아동에게 지급된 서비스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상담서비스(50.2%)이며, 두 번째로 일시보호서비스(30.1%), 마지막으로 심리치료(8.9%)로 나타나 상담과 일시보호서비스에 비해 심리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학대 받은 아동에게 심리치료적 개입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동시에 미술치료를 포함한 예술치료의 필요가 적극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미술치료는 언어적 유창성이 덜 발달한, 즉 언어적 정보가 미흡한 아동들에게 있어 학대의 예방 및 돌봄의 환경과 부모의 인식 등에 개선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즉, 학대의 존재 여부를 알리고 미술치료사에게 알려주는 시각적 표식이 될 수 있다. 학대 받은 아동이 발견되고 초기에 아동에게 미술치료적 개입을 함으로써 더 악화될 수 있는 학대에 대한 예방의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미술치료 연구는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학대 피해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미술치료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술치료사에 대한 체험적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미술치료사의 육성과 아울러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부모와 가족을 치료개입계획에 참여하게 하는 즉, 파트너십을 통한 상호적 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여기고 있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교육 및 상담을 통해 부모가 양육기술을 개선시키도록 돕는 ‘부모지원 프로그램(Parent Support Program)’과 같은 서비스 제공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해 필요시, 성인이 될 때까지 학대의 정도에 따라 상담·지도·원조 등 지속적인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문영희, 2011)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동학대의 장소와 학대가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며, 가장 믿고 의지가 되어야 할 부모임을 감안할 때, 부모교육과 부모상담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권석만(2003). 『현대이상심리학2』. 서울: 학지사.
- 김숙진(2008). 미술치료가 학대받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13).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새터민 아동의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미연(200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동의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영희 (2011). 아동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이유경(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순영(2009).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본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 나타난 아동기 트라우마의 상징적 이미지 재현. 미술치료연구 16(5).
- Malchiodi, C. A.(1998). 김동연, 이재은, 홍은주 역(2001). 『아동미술심리이해』. 서울: 학지사.
- Malchiodi 외 공저, 김동연.최은영 공역(2003). 『아동임상미술치료』. 학지사.
- Peterson, K. C., Prout, M. F. & Schwarz, R. A.(1991) 신응섭·채정민 역(199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통합적 접근 : 충격적인 사건에 따른 심리적 문제의 이해』. 서울: 하나의 학사.
- Rubin, Judith A(2002), Art as Therapy in Times of Crisis, 김진숙 역, 『위기를 중재하는 치료로서의 미술』, 서울: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 Amheim, R. (1992). *To the rescue of art*. Berkeley, CA: U. of California Press
- Terr, L. C.(1987).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토론 II

미술치료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

김은영(한국사회복지미술치료사협회)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미술치료적 관점에 대한 연구로 학대아동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미술치료 상담 중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고, 개별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학대피해아동의 다양한 PTSD증상 감소의 변화를 제시한 사례연구입니다. 또한 연구자는 미술치료 작품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공통된 특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미술치료적 관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자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증상 특징을 제시하였고 미술매체의 상징적 표현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거부감 없이 내면의 상처를 표현하고 치유 할 수 있었음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외상을 경험한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표현, 특정 색 표현과 의미, 그림표현의 양식을 통해 외상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외상의 반응 패턴이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외상 아동은 외상 사건과 관련된 주제를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내면에 억압된 분노와 상처들을 상징적인 꿈으로 표출하는데 이런 외상 증상을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미술표현임을 연구자는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연구자는 학대피해아동의 개별 사례를 통해 미술치료의 효과적인 변화 및 학대피해아동의 작품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줌으로써 아동학대의 미술치료적 접근에 대한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자는 언어적 표현이 미흡한 학대아동을 위해 심리치료 특히 미술치료를 통해 사전에 학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필요성도 제시해 줌으로써 학대아동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연구자의 위 주제에 대한 연구시도와 그 결과 발표는 의의를 갖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본인은 토론자의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언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자는 미술치료 과정 중 나타나는 미술치료 작품을 근거로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확인하고 학대피해아동임을 작품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의 학대피해를 미술작품으로 평가한 연구자는 아동학대관련 미술치료 선행연구와 연구자의 임상경력, 내담 아동의 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평가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평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된다면 객관성과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증거가 없을 시 미술치료 작품이 아동학대 증거물로 법적 효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연구자의 평가에 대한 근거제시와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연구자가 제시한 심리적 외상의 미술표현 작품들 중 ‘외곽선의 강조’와 ‘통합성의 부족’에 대해 학대피해 아동 작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구자는 ‘A사례’에서 가정폭력 현장의 장면이 아동의 미술작품에서 표현되어 부모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부모상담 이후 아동이 작품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의 긍정적 변화의 원인에는 미술치료 뿐만 아니라 부모의 변화도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자가 진행한 부모상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부모의 변화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미술치료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에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자의 ‘A사례’에는 양적 방법이 나와 있지 않는데 아동의 주호소 문제 및 부적응증상과 관련하여 확인한 양적 분석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며, 질적 방법의 평가 중 그림투사 이외에 연구자의 관찰과 아동 보호자의 피드백을 통해 확인된 아동의 부적응 행동 변화가 단계별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연구자는 사각지대에 잠재되어 있는 학대아동의 존재여부를 미술치료를 통해 사전에 확인한다면 학대아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부모와 가족의 치료개입계획과 관련 선진국(부모지원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제안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으로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논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치료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의 시도는 학대피해아동의 심리 정서적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미술치료 접근의 필요성과 미술치료가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피해아동 발견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아동학대 분야에서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연구자의 위주제에 대한 연구 시도와 기여가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II

미술치료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

홍 은 주 (을지대학교 교수)

주제발표Ⅲ

아동학대로서의 부모
-자녀 동반자살의 원인 및 발생기제 탐색-

한국아동보호학회 발제논문

아동학대로서의 부모-자녀 동반자살의
원인 및 발생기제 탐색

2017. 4. 14

이 미 정

(한림대학교)

이미정 (한림대학교)

차 례

1. 연구의 취지
2. 이론적 논의
3.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4.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연구의 목적

왜 그들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가?

- 국내 선행연구 및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자녀살해 후 자살(F-S)의 발생률을 추정한다.
- F-S사건의 범행동기에 따라 가해자 군집별 범행특성을 유형화한다.
- F-S사건 군집유형별 범행원인 및 심리기제를 탐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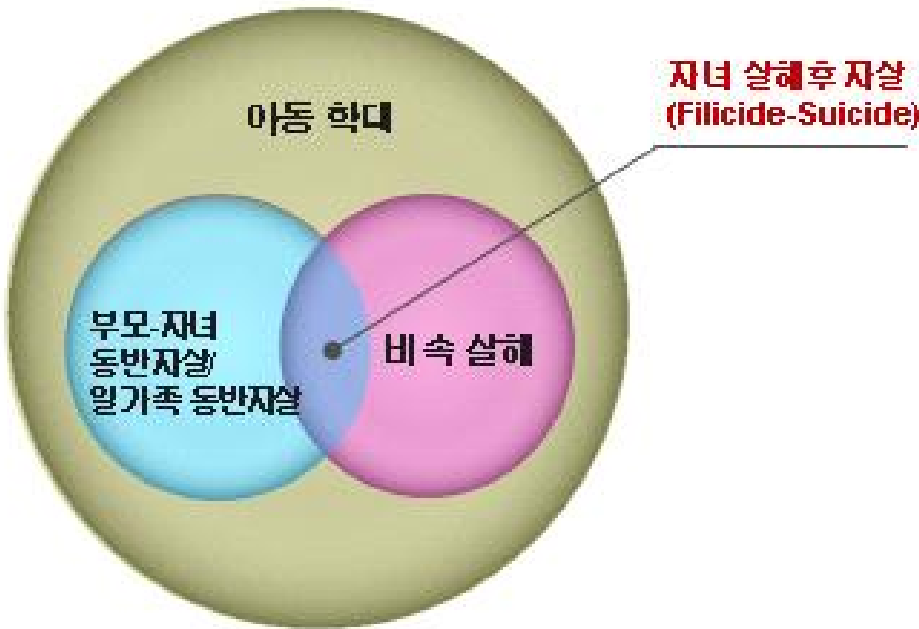
소위 ‘부모-자녀 동반자살’의 이론적 논의

개념의 구분 : 동반자살 vs. 살해 후 자살

- 명백한 살인 행위인 ‘살해 후 자살’과 합의 후 ‘동반자살’의 의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용어를 사용해야 함.
- 동반자살(Suicide pact/Joint suicides)
개인적·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서로 유사한 갈등을 겪는 둘 이상의 자들이 모여 서로 합의 하에 자살하는 것.
- 살해 후 자살(Homicide-suicide/Suicide by homicide)
가해자가 한 명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한 후 짧은 시간 내에 자살하는 것(Harper & Voigt, 2007).

개념의 구분 : 일가족 동반자살 vs. 자녀 살해 후 자살

- 자녀 살해 후 자살(Filicide-Suicide)** : 부, 모 또는 부모가 이타적 이유, 정신질환, 자녀학대, 원치 않는 아이 혹은 배우자에 대한 복수 등과 같은 동기로 자녀를 살해 후 스스로 자살하는 것(Friedman, et al., 2005).



선행연구 : 국내 자녀살해 후 자살관련 실증연구들

연구자(년도)	분석대상	분석기간	분석자료
안동현(1997)	부모-자녀 동반자살	1978-1994	신문기사
이미숙(2007)	가족동반자살	1994-2005	신문기사
이상현(2008)	가족내 자녀살인동반 자살	2000-2007	경찰수사자료
김순임(2012)	자녀살해	2009-2012	범죄분석시스템 (SCAS)
이현정(2012)	부모-자녀 동반자살	1991-2010	신문기사
정성국 외(2014)	자녀살해	2006-2013	범죄분석시스템 (SCAS)

선행연구 결과

- 2006~2013년(7년 3개월)간 자녀살해는 총 230건 발생했고, 그 가운데 **자녀살해 후 가해자인 부모가 자살한 경우는 101건(45.5%)이었음** (정성국 외, 2014).
-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48%)가 어머니인 경우(43%)보다 자녀살해 후 자살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았으나, 부모의 성별 간 자살 유무에 대한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표> 부모의 성별에 따른 자녀살해 후 자살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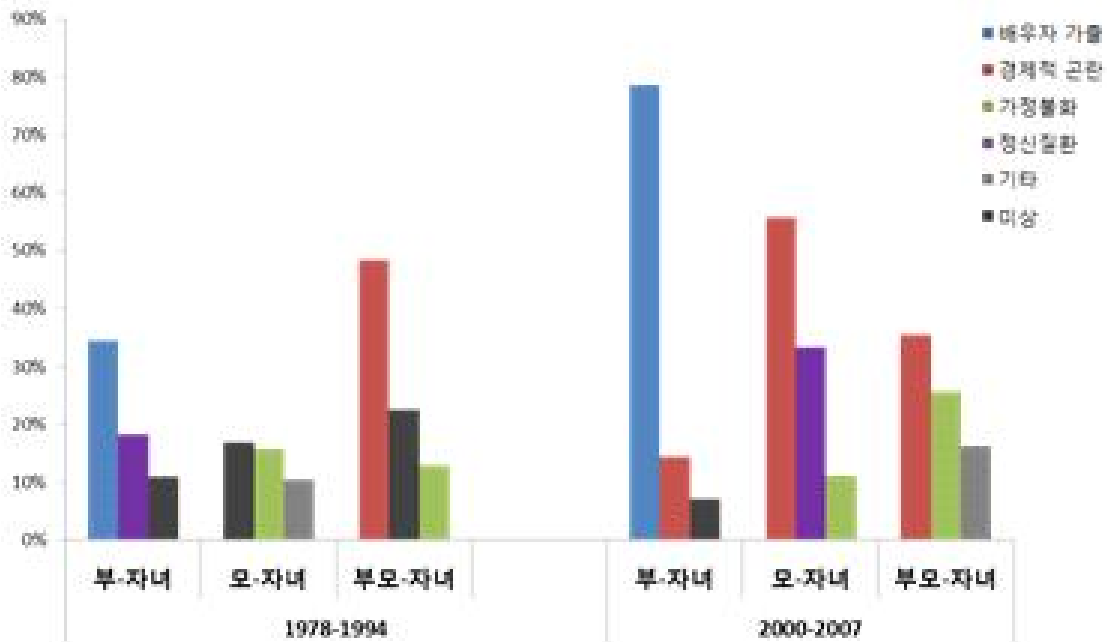
	Suicide	No suicide	Total	
	No (%)	No (%)	No (%)	P-value
Father	55 (47.83)	60 (52.17)	115 (51.80)	0.4697
Mother	46 (42.99)	61 (57.01)	107 (48.20)	
Total	101 (45.50)	121 (54.50)	222 (100.00)	

출처 : 정성국 외(2014), 박문희, 존속살해의 자식살해 분석,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38, p. 71.

선행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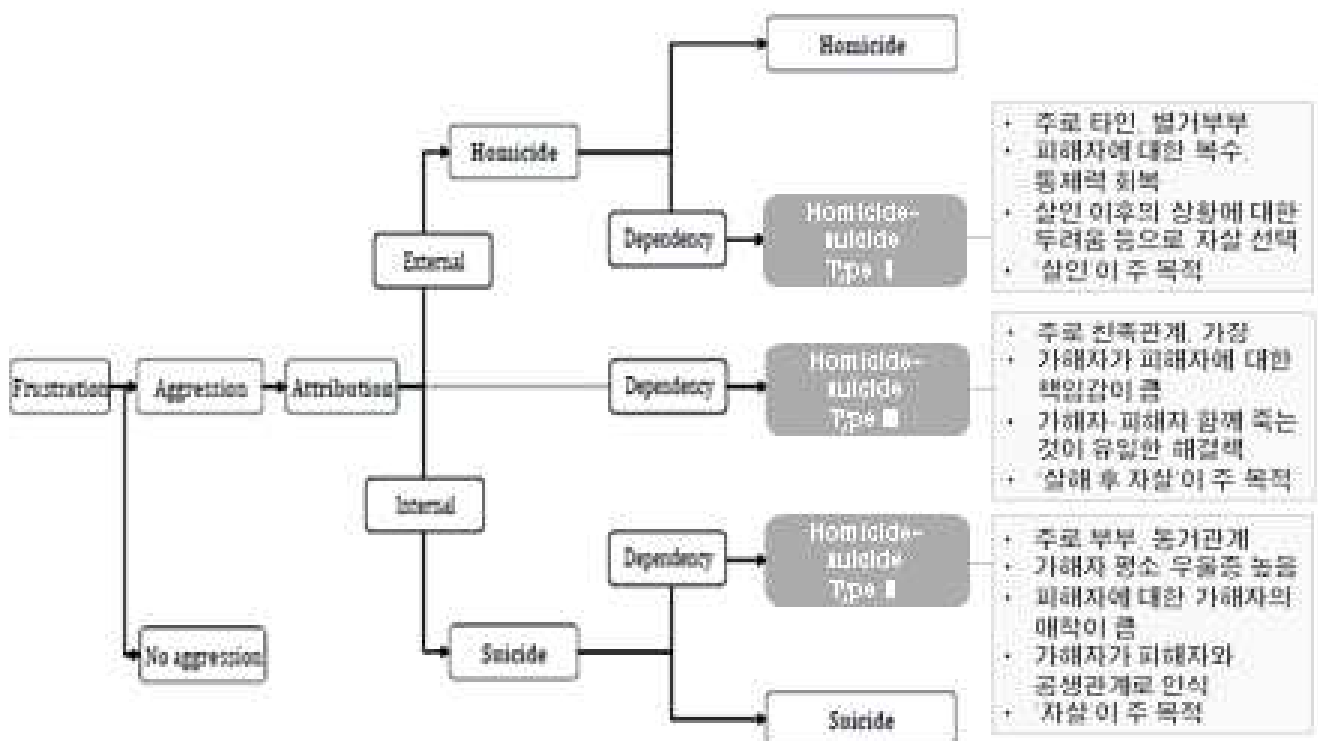
- 2009~2012년까지 발생한 가족 내 살인(배우자살해, 존속살해, 자녀살해) 총 414건 가운데 자녀살해는 84건(20.3%)이었으며, 자녀살해 후 자살사건은 총 41건이었음(김순임, 2012).
- 자녀살해에서 **무울증이 있는 부모는 1.49배, 생활고가 있는 부모는 2.86배 자살 시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직후 가족동반자살의 발생건수가 급등, 이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2001년 이후에 **가족동반자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미숙, 2007).
- 주관적 무력감, 타인과의 비교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자녀를 부모의 종속물로 보고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부모-자녀간의 자마존돈' + 획일적, 가족주의적 문화적 배경 +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 → **가족단위 동반자살 발생**시킴.

선행연구 결과 : 자녀 살해후 자살의 원인 추정



출처 : 이현경(2012), '부모-자녀 동반자살'을 둘러싼 살인 및 자살의 아시아 지역적 가변 특성 : 한국, 일본, 일본 사범대 대학 비교문화적 접근, 학문학연구 40, p. 200 재구성.

살해 후 자살 Homicide-suicide의 이론적 모형



Source : Lkm, M. C. A. (2010)

연구방법 및 분석 결과

연구 방법

- **분석 방법:** 온라인 신문기사 DB 사이트에서 관련키워드 입력 기사검색 및 내용분석
- **분석 기간:** 2006.01 ~ 2016.12.
- **분석대상범위**
 - 가해자가 전·현 부부, 동거인 또는 내연관계 등의 친밀한 관계(intimate partner)의 가정의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
 - 가해자 자살미수 사건 포함.
- **분석제외사건**
 - 부모이외 다른 친족에 의한 살해 후 자살사건, 자녀가 포함되지 않은 부부/동거인간 살해후 자살사건, 자녀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살해미수사건, 가해자가 수개월 후 자살한 사건, 가해자가 자살을 시도하지 못한 사건,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 중복된 기사, 관련없는 기사, 사설 등.
- **최종 분석대상**

상기 조건을 만족한 **자녀 살해후 자살사건 총 60건.**

국내 F-S사건 의미연결망 분석



국내 F-S사건 발생실태 분석

- 최근 10년간 총 60건 언론 보도(연평균 약 6건).

* 경찰통계DB 근거 연평균 약 14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언론보도율 약 40% 수준)

- 가해자 총 64명, 피해자 총 116명
- 2명 이상 피해자 발생 사건 전체의 65%

피해자 수	1	2	3	4	계
N(%)	21(35.0)	25(41.7)	11(18.3)	3(5.0)	60(100.0)

- 총 사망자 최소 160명, 자살미수 20명

가해자 및 피해자 인구사회학적 특징

가해자

- 남자(53.1%) , 여자(46.9%)
- 평균 연령 39.0세, 친부모(95.3%)

피해자

- 여자(66.4%), 남자(33.6%)
- 아동청소년 피해자 총 95명(81.9%), **평균연령 9.5세**
- 초등학생 이하 아동피해자 총 73명(62.9%)
- 딸(49.2%) > 아들(33.6%) > 아내(14.6%)

가해자의 범행 특징

- **범행장소** : 집안(75.0%) > 숙박업소(10.1%) > 자동차(8.3%)
- **살해방법** : 질식(50.0%) > 흉기(26.7%) > 중독(11.7%)
- **자살방법** : 질식(23.3%) > 투신(21.7%), 흉기(21.7%)
- **유서** : 있음(53.3%)

범행 동기	N	%
경제사정	20	33.3
정신질환	16	26.5
부부갈등	14	24.2
자녀문제	9	16.0

가해자 성별에 따른 피해자 수

- 가해자 성별에 따른 피해자의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 가해자는 여성 가해자보다 3명 이상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할 가능성이 높음. (일가족 살해후 자살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남성)

성 별	피해자 수				χ^2 (p-Value)
	1	2	3	4	
남	5(7.8)	15(23.4)	11(17.2)	3(4.7)	20.518*** (.000)
여	17(26.6)	19(20.9)	0(0.0)	0(0.0)	
계	22(34.4)	28(43.8)	11(17.2)	3(4.7)	

***p<.000

가해자 성별에 따른 자살시도 결과

- 가해자 성별에 따른 자살시도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 가해자는 여성 가해자보다 자살시도로 인해 사망이나 중태와 같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가 더 높음. (약 2.950배)

성 별	사망/중태	경상	계	OR (95% CI)	χ^2 (p-Value)
	N(%)	N(%)			
남	27(42.2)	7(10.9)	34(53.1)	2.950 (.881-8.871)	3.898* (.050)
여	17(26.6)	19(20.9)	30(46.9)		
계	44(68.8)	20(31.2)	64(100.0)		

*p<.05

군집별 가해자 특성

구분		군집1 (N=17)	군집2 (N=11)	군집3 (N=31)	전체	χ^2 (p-Value)
성별	남	14(23.7)	5(8.5)	13(22.0)	32(54.2)	7.646*
	여	3(5.1)	6(10.2)	18(30.5)	27(45.8)	
자살 방법	질식	7(13.5)	5(9.6)	2(3.8)	14(26.9)	19.294*
	뛰어	4(7.7)	1(1.9)	8(15.4)	13(25.0)	
	투신	1(1.9)	0(0.0)	12(23.1)	13(25.0)	
	도둑	2(3.8)	2(3.8)	4(7.7)	8(15.4)	
	의사	2(3.8)	1(1.9)	1(1.9)	4(7.7)	
자살 사도 관련성	사망	10(16.9)	6(10.2)	19(32.2)	35(59.3)	11.856*
	중상	5(8.5)	0(0.0)	1(3.2)	6(10.2)	
	경상	2(3.4)	5(8.5)	11(18.6)	18(30.5)	
피해 자 수	1명	3(5.1)	7(11.9)	10(32.3)	20(33.9)	6.382*
	2명					
	이상	14(23.7)	4(6.8)	21(35.6)	39(66.1)	

F-S 유형별 범행 프로파일링(profiling)

구분	군집1 (부부갈등형)	군집2 (자책형)		군집3 (정신질환형)
범행 목적	살해	살해후 자살		자살
발생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외도- 부부 불화- 배우자 증오- 이혼/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질병- 자녀 걱정- 문제해결-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실패- 실직- 생활고- 채무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증- 스트레스- 정신병<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실패- 실직- 생활고- 채무</div>
범행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가해자- 질식사- 사망확률 높음- 피해자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해자- 질식사- 사망확률 높음- 피해자 수 적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해자- 투신- 사망확률 높음- 피해자 다수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논의 및 결론

- 자녀 살해 후 자살(F-S)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극단적인 아동학대 행위이며, 한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 및 관련연구가 매우 미흡함.
-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언론보도를 통한 F-S사건은 실제 발생사건의 40% 수준이며, 가해자 대다수가 친부모이고 아동피해자의 평균연령이 10세 미만임을 추정하였음.
- 국내 F-S사건은 Liem(2010)의 이론모형에 부합하는 3가지 유형, 1) 부부갈등형, 2)자책형, 3)정신질환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형별 범행특성 및 발생요인 분석이 가능하였음.

논의 및 결론

- 다만, 2)자책형의 경우 Liem(2010)의 모형 가운데 type2에 해당하나, type3 특징과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는 바, 이는 정신건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살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당시 정신질환 여부를 명확하지 파악하지 못하는 한 엄밀하게 구분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임.
- 국내 F-S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는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그에 대한 부모의 낙담과 책임감, 부모의 자살행위에 자녀를 동참시키고자 하는 합리화, 부부간 불화로 인한 배우자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하는데 있어서 자녀를 수단화하는 등의 기제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은 발생기제는 단지 경제적 이유가 F-S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순한 해석과 대응책을 지양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사회구조제도, 정신보건시스템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가족문화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음.

연구의 한계점

● 데이터 소스의 근본적 한계

- 경찰의 범죄분석시스템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워, 선행연구의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추정하였음.
- 경찰의 범죄분석시스템상 데이터 입력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른 코딩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가해자의 정신건강 정보가 병원 진단기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가족 및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입력된 것이기 때문에, DSM-IV에 따른 정확한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신문사의 성향에 따라 동일사건을 확대, 축소 보도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신문사마다 사용하고 있는 자녀 살해후 자살 사건에 대한 키워드가 달라 완전한 검색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연구주제의 기본 속성적 한계

- 살해후 자살사건은 대다수의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의 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소수 생존자들의 진술 및 유서, 사건정황 등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추정하는 것에 불과함.

이 미 진

Research Professor

한림대학교

자살과 특색적 신경과학연구소

Suicide and SMH Institute,
Hallym University

pennywinter@msn.com



토론Ⅲ

아동학대로서의 부모-자녀 동반자살의 원인 및 발생기제 탐색

조운오(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 부교수)

최근 2017년 4월 4일 안동에서 일가족 5명이 연탄가스 중독 자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망한 4명의 일가족 중 13살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자녀 살해 후 가족 동반자살”사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살 유서 내용을 보면 ‘빛이 너무 많아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자살동기가 “경제적 파탄”인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가 부모-자녀 동반자살의 범죄 동기를 유형화하여 그 군집 별로 세부 특성을 살펴보고, 범죄심리 기제를 살펴보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녀살해 후 동반자살 사건의 정확한 범죄발생 기제를 밝히고, 향후 추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과 관련되어 연구방법론이나 선행연구 차원에서 큰 이견은 없으나, “자녀 살해 후 자살행동”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자녀-부모 관계에서 어떤 훈육태도를 가졌었고, 어떤 보호자 역할을 담당했었는지 궁금하다. 자살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 아동살해(suicide by homicide)를 하지 않고, 순수한 성인들 간의 동반자살(joint suicide)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과거 이전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떤 다른 양육태도를 가지고 아동을 돌보았는지 궁금하다. 만약 양육태도가 두 집단 별로 상이하다면 정책적 차원에서 아동 보호자로서의 훈육태도 사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군집별로 그 범죄 발생요인과 범행특징이 서로 상이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에 대한 개별 유형 별 사후 범죄예방 정책을 저자가 부연 설명해 주길 바란다. 예를 들면, 군집2에 해당하는 “자책형”은 자녀의 질병 문제로 살해 후 동반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에 해당하는데, 다른 군집 특성과 달리, 이런 갈등상황에 노출된 가정에는 어떤 범죄예방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추가적으로 보면, 군집 1에 해당하는 “부부갈등형”은 상대적으로 전형적인 가정폭력범죄 성향을 띠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차원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책형”은 치료 및 개입방법 차원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대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녀살해 후 동반자살 사건에 대한 범죄학적 분석은 사실, 그 데이터 접근의 한계로 연구 자체가 어렵고 선행연구를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편인데, 국내에서 언론보도 자료를 활용해 “유형화”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향후 본 유형화 연구를 통해 가족 자살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예방 처우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